

First Steps의 친구, 지원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가 북한의 영양결핍 아동들을 돕는 데 큰 발걸음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전해드립니다. 북한 사역을 시작한지 4년째 되는 올해, 우리는 만 명 이상의 6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고단백의 두유를 매일 제공할 수 있는 8대의 바이타카우를 보내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수잔 리치와 안드레아 로즈는 First Steps의 원산과 남포 공장을 방문해, 그 기계들에서 만들어진 두유가 어떻게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수잔과 안드레아가 방문했던 모든 고아원과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의 키가 두유를 먹기 전보다 한 달에 평균 0.3cm 더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장속도는 성장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아원 어린이들은 한 달에 0.6cm 까지 자라고 있고, 탁아소 어린이들은 0.9cm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First Steps도 두유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2004년 초에, 우리는 남포에 단 한 대의 카우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후원과 지원금으로, 2004년 말에는 남포에 4대, 원산에 4대, 총 8대의 기계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First Steps의 후원금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배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First Steps는 온전히 자원봉사로 조직이 운영되며, 우리의 2004년 연간 보고서가 보여주듯 98%의 후원금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연말까지 4만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수잔과 안드레아는 새 바이타카우를 설치하기 위해 4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지역 관리들은 First Steps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기까지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바이타카우 기계들을 보관할 건물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그들 자신의 밭에서 재배한 메주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설이 있는 원산의 관리들도 그들 스스로 콩을 재배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그 지역에 대한 First Steps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6월까지 새로운 지역에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먹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잔과 안드레아는 ‘스프링클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영양 철분제 샘플을 얻었는데, 그것은 토론토 소아병원의 스탠리 즐로트킨 박사가 특별히 개발도상국가의 빈혈 퇴치를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빈혈은 북한의 어린 아이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영양 결핍 문제로서, 두뇌발달을 저해하며,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스프링클스를 시험해 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First Steps는 식품에 “뿌릴” 수 있도록 일회용의 작은 용기에 담겨 나오는 이 제품이 우리의 두유 프로그램과 통합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First Steps는 또한 바이타카우의 사촌격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바이타고트를 소개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전기가 없는 북한의 외곽지역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영양결핍(유니세프의 평가)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만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매우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제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irststepscanada.org](http://www.firststepscanada.org)

**2005년 2월 1일 화요일**

수잔과 나는 북한을 주 2회만 왕복 운항하는 고려항공에 몸을 실은 채 오전 11:30에 북경을 출발한다. 이번이 세 번째 북한 여행이며 이륙 후 1시간 50분이면 이 낯은 소련제 일류신 여객기는 한 줄기 희망을 싣고 우리를 평양까지 실어준다. 평소처럼 우리에게서 두 명의 안내원이 따라붙어 북한에 있는 닷새 동안 동행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스프링클스에 관해 발표한 평양 어린이영양연구소로, 스프링클스는 토론토에 있는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의 스탠리 즐로트킨 박사가 새로 개발한 복합영양 철분 보충제이다. 낮익은 얼굴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그들은 수잔의 발표를 아주 잘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들에게 몇 가지 연구자료와 함께 약간의 스프링클스 시제품을 맡기는데, 일회용의 작은 용기에 들어 있는 이 시제품은 어린이의 음식에 “뿌려” 먹는 것이다.

**2005년 2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 우리는 차로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서해안의 남포로 간다. 거기서 관리들을 만나니 우리에게 두 대의 새 바이타카우 기계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남포 근교에서 자체 재배한 메주콩과 기증 받은 메주콩을 사용해 두유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는 First Steps가 중국산 콩 60톤(남포용 30톤, 원산용 30톤)을 더 주문했다고 알려줄 수 있어 기쁘다. 우리는 바이타카우가 설치된 곳 세 군데를 모두 돌아보는데 가는 곳마다 두유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건강이 개선됐고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라고 한결 같이 말한다. 남포 어린이집의 원장은 3도 영양 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모두 2도로 개선됐다고 한다. 지금은 새로 들어 온 아이 하나만 3도 영양실조이다. 우리는 오후에 평양으로 돌아와 철물점에 가서 남포에 있는 새 바이타카우 한 대에 쓸 전압조정기를 산다.

**2005년 2월 3일 목요일**

우리가 첫 번째로 평양시 형제산구를 둘러 탁아유치원소장담당을 만났다. 이곳은 우리가 두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곳이다. 점심 전에 평양 어린이영양연구소로 돌아가 스프링클스 사업에 관해 더 논의한다. 그들은 스프링클스 시험운용을 위한 개념문건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출국할 때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원산으로 향한다.

**2005년 2월 4일 금요일**

우리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지역 탁아소. 마침 도착할 때 트럭 한 대가 두유를 배달한 후 떠나고 있다. 그곳 직원들은 First Steps의 첫 번째 바이타카우 두 대가 원산에서 가동에 들어간 2004년 6월 이후 두유가 일주일에 여섯 번씩 정기적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확인해 준다. 탁아소 소장은 아이들이 한 달에 평균 0.7cm씩 자라고 있다고 신이 나서 알려준다. 또 다른 탁아소로 가니 그곳의 소장도 지난 6월부터 아이들이 배달 두유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며 비슷한 보고를 한다. 아이들이 두유를 먹기 전에는 한 달에 0.6cm씩 자랐지만 지금은 0.9cm씩 자라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내가 근 일년 전에 처음 원산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보이지만, 좀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 애당초 중요한 성장기에 최소한의 배급식량으로 간신히 연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이 더딘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2005년 2월 5일 토요일**

우리가 탄 비행기는 오전 8:30에 평양을 이륙한다. 북한 방문 경험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글로 써서 “참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해 직접 경험할수록, 북한 주민이 매일 직면하는 역경과 도전을 점차 알게 될수록 나의 우려는 그들의 인내심에 대한 감탄으로 변한다. 나는 새삼스레 First Steps의 사역이 이 가난에 찌든 나라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다.